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28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71.85원 (-12.65원)

KOSPI

6,615.03 (+139.40, +2.15%)

KOSDAQ

1,226.18 (+22.34, +1.86%)

국고채 10년 금리

3.820 (+0.00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경제/철강금속/해외산업재	산업용 금속 전성시대: The Rise Goes On! [박성봉, 전규연, 김시현]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FOMC + 빅테크 실적 [박승진]
New K-ETF	미국 로봇 피지컬AI 액티브 [박승진]
DIN (Doo It Now)	6천피 생존 전략: ②모두가 사이클 끝만 보고 있다 [김두언]
주간 하나채권	[4월 5주] 한국 금리라고 특별하지 않다 [박준우, 허성우]

기업분석

테스	DRAM, NAND 동시 수혜 및 신규 장비 기대감 [김록호]
IPARK현대산업개발	외주주택 마진 서프라이즈 [김승준]
LG이노텍	Capa 여력이 신규 고객사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업황 [김민경]
SK텔레콤	5월 전략 – DPS 조기 정상화 기대감 커질 시점 [김홍식]
KT	5월 전략 – 주가 상승을 위한 재료가 부족한 시점 [김홍식]
LG유플러스	5월 전략 – 단기 주가 반등 기대 [김홍식]
한화오션	상선 마진 18% 달성 [유재선]
에스티팜	1Q26 Re: 아주 좋은 시작, 기대할만한 한 해 [김선아]

산업분석

게임	실적 시즌 전 주요 사항, 크래프톤과 엔씨가 편하다 [이준호]

Weekly & Monthly

통신서비스 5월 투자 전략	결국 통신 서비스로까지 매수세가 확장될 듯 합니다 [김홍식]
건설 Weekly	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 점검 결과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Advantest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했으나, 상향 조정 가능성 상존 [김록호]
HANA US Weekly	CPU가 이제야 관심을 받는군요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KB금융, 삼성SDI, HD현대일렉트릭, 한국금융지주, HD건설기계, 알루코, 심텍, 피에스케이홀딩스, RF머트리얼즈, 코세스

하나증권

2026년 04월 28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철강금속

산업용 금속 전성시대: The Rise Goes on!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27일

POSCO홀딩스(005490)
BUY I TP 740,000원 I CP 417,500원

풍산(103140)
BUY I TP 160,000원 I CP 100,600원

알루코(001780)
Not Rated I CP 2,650원

삼아알미늄(006110)
Not Rated I CP 68,800원

SQM (066970)
Not Rated I CP 88.79 USD

G2 경기가 견조하다면, 전쟁 이후에는 산업금속 수요 회복에 주목

이란 전쟁 중 공급 차질이 눈에 보이는 에너지 원자재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면, 전쟁 이후 시장은 미처 보지 못했던 파급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 이후 산업금속 공급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유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고, 각국 경제는 전쟁으로 인한 하방 압력을 만회할 만한 회복탄력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타격은 제한적이었다. G2 경제가 견조하다면 산업금속 수요의 회복 기대감은 점차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전쟁 노이즈가 완화되고 나면, 미국(금리 인하)과 주요국(금리 동결/인상)의 금리차 여건이 미 달러 약세를 유도하며 원자재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한다.

리튬, 전기동, 알루미늄, 희토류, 우라늄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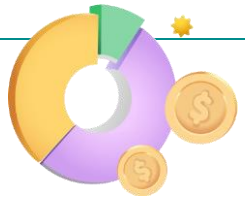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수년간의 급락세를 뒤로하고 주요 생산국의 감산과 짐바브웨의 원광 수출 금지 등 공급 축소 이슈에 힘입어 지난해 8월부터 반등에 성공해 올해 1월 톤당 23,000달러 선까지 반등했고 최근도 유사한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ESS 및 중대형 전기트럭 수요 호조로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된다. 전기동 역시 대형 광산의 잇따른 사고와 노후화로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인프라 수요가 이를 초과하여 올해 약 55만 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알루미늄 또한 중국의 증산 여력 고갈과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 에너지안보의 핵심인 희토류는 2040년경 수요가 공급을 약 40%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중 의존도는 80%로 여전히 높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수입도 상당하다.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은 2028년부터 미국이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며 자국과 캐나다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HALEU 생산을 위한 농축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며 구조적 가격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다.

POSCO홀딩스, 풍산, 알루코, 삼아알미늄, SQM, MP머티리얼즈, 카메코 관심

전반적으로 핵심 산업 금속이 공급 제약과 에너지 전환 수요 증가라는 공통된 환경에 있어 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해서 POSCO홀딩스, 풍산, SQM, 알루코, 삼아알미늄, MP머티리얼즈, 카메코 등의 업체들의 수혜가 확대될 전망이고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철강/비철금속 박성봉 sbpark@hanafn.com
경제/원자재 전규연 kychun@hanafn.com
해외산업재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4.27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FOMC + 빅테크 실적

차기 연준의장 불확실성 완화. 빅테크 및 주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부각 구간: SMH/DRAM, PAVE, QUAL, QGRO와 DIVO/QD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 주식시장 중심의 대규모 자금 유입 영향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과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259.8억달러, +155.1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유출(-54.7억달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형 ETF 시장에 총 +359.4억달러의 투자자금이 순유입되었다. 신흥 아시아 지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81.9억달러가 빠져나가면서 2주 연속 자금 순유출 흐름이 이어진 한편,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는 3주만에 다시 100억달러 대로 복귀하였다.

- **ETF 포트폴리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적시즌이 시장의 시선을 돌려놓은 모습이다. 이란의 내부 의견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도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과는 달리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중심의 혁명수비대(군부)가 강경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어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전과 종전 기대가 형성되었다가 확전 우려가 재개되고, 다시 되돌려놓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미 전쟁의 시발점과 정치적 명분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국면에 진입한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을 바꾸는 배경이 되기에는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된다.

-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는 사실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시점이다. 금주에는 실적 시즌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주간이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부터 에너지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1분기 성적이 확인된다. 미국 현지 기준으로는 수요일과 목요일, 한국 기준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 기준 수요일(4/29) 장 마감 후에 Microsoft/Amazon/Alphabet/Meta/Qualcomm 등이, 목요일(4/30) 장 전에는 Eli Lilly/Caterpillar/ConocoPhillips 등이, 장 마감 후에는 Apple/Sandisk/Western Digital 등의 기업들이, 금요일(5/1) 장 전에는 Exxon Mobil/Chevron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여전히 IT 기업들의 1분기 이익 증가율이 46.3%로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누적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주중에 진행되는 4월 FOMC(4/28~29)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상 임기 기준으로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써 이끌어 가는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무부의 기소 리스크가 완화(연준 감찰기관으로 이동)된 만큼, 금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이사직(28년 1월 임기) 업무의 정상 수행 여부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파월의장에 대한 법적 압박을 비판하며 케빈 워시 지명자의 인준 절차를 가로막고 있던 은행위원회 소속 틸리스 의원도 인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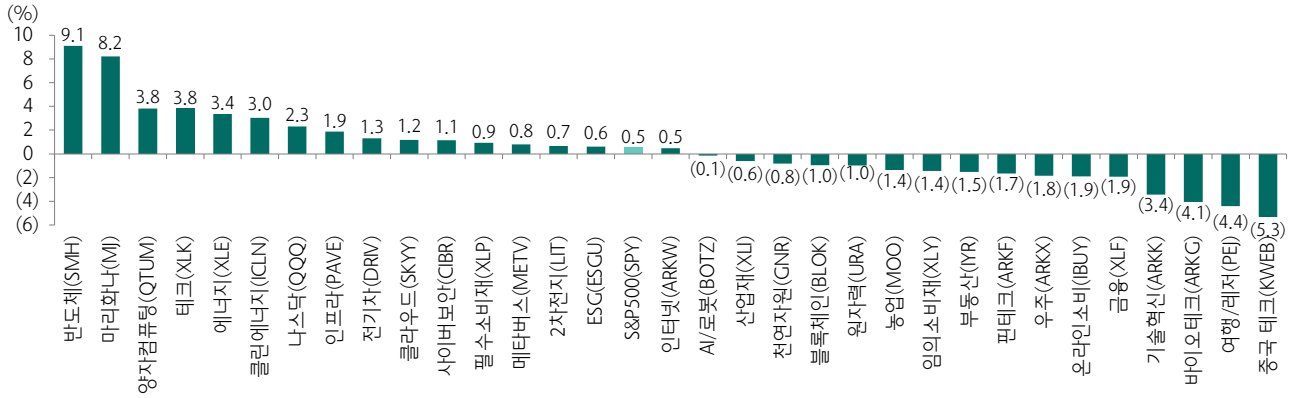
- 케빈 워시가 청문회를 통해 현 물가에 대한 기준 조정 필요성까지 주장했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다른 이사진과 연준인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 기대 심리가 일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다음 FOMC는 6월 16일~17일에 열릴 예정)된다. 참고로 이번 주에는 미국 외에도 일본과 유럽, 영국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한다.

- 경제지표의 경우, 목요일(4/30)에 확인될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와 PCE 물가지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를 PCE 물가상승률이 상회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해석에 대한 스탠스가 엇갈리고 있고, 지난 4분기에 셧다운 영향으로 정부 활동이 위축되며 낮아졌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컨센서스: +2.2%, 4Q: +0.5%)의 반등 여부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의 시장 방향성과 투자심리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주 후반(5/1)에 발표되는 4월 ISM 제조업 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프라 및 산업재 섹터의 긍정적 모멘텀 기대가 유효한 이유가 되겠다.

- ETF 포트폴리오는 AI 산업 성장의 단순한 스토리 하에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는 SMH/DRAM(반도체), ZAP/POWR(전력), URA/NLR(원전)의 중장기 포지션을 중심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금주 실적 일정을 고려하여 MAGS(Magnificent7)도 긍정적 기대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 이와 함께 SpaceX 상장 기대와 더불어 정부 정책 및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X/NASA(우주항공),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정책 방향을 고려한 KDEF(한국방산),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주도 하에서 투자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MADE(제조업),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QUAL/SPHQ(퀄리티)와 QGRO(퀄리티성장) 등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 여전히 USO(원유선물), DBA(농산물 선물), UCO(원유 2배)/SCO(원유 -2배) 등의 ETF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 변화 흐름에 따라 변동성 대응 및 헷지의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종목들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점 통과 및 변동성 감소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4.20~4.24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4월 28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미국 로봇 피지컬AI 액티브

Global ETF

신규 상장 ETF(4/28)
- KoAct 미국 로봇 피지컬AI 액티브

KoAct 미국 로봇 피지컬AI 액티브: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이다.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건설장비, 물류 로봇, 스마트 글라스 등 물리적 실체를 가진 모든 AI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포괄적인 피지컬 AI 시장 전반에 주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겠다.

액티브 운용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지수 대비 0.7의 상관 계수 요건을 유지하며 투자 전략에 상대적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는 ETF 종목이다. 기술 트렌드와 주도 기업의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로봇 산업과 피지컬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유연한 액티브 운용 전략은 급격한 진화 과정을 추종하며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비교지수인 'iSelect AI 미국 로봇 피지컬 지수'는 유동성 요건(시가총액 3억달러↑, 평균 거래대금 3천만달러↑)을 충족시키는 미국 상장 종목을 유니버스로 설정한 후, Physical AI, Robot, Humanoid Robot, Mobile Robot, Surgical Robot, Autonomous Vehicle, AI Semiconductor 등의 키워드들을 반영한 NLP 스코어링 산출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투자적정성과 정량 조건을 충족시키는 스코어 상위 40개 종목들을 지수 편입 대상으로 한다.

실제 ETF 운용 과정에서는 상기 비교지수 포트폴리오의 주요 기업들과 더불어 Bottom-Up 리서치를 통한 종목 선별 및 편입 작업이 병행된다. 아직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Figure AI, Boston Dynamics, Apptronik 등의 로봇 기업들과 OpenAI, Anthropic 등 AI 모델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장이 되는 타이밍에 비교지수 포함 종목이 아닌 상황일지라도 신속한 편입 판단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의 ETF 종목이 되겠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미국 로봇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 확실한 테마의 방향성을 추구할 전망이다.

비교지수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선물옵션 만기일의 차주 첫 영업일)에 걸쳐 진행하며,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시가총액 50%, 키워드 스코어 50%의 기준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추가로 키워드 상위 20개 종목은 핵심 유니버스, 하위 20개 종목은 일반 유니버스로 분류하여 각각 7%와 3%의 Cap Rate으로 최대 편입 비중(최소: 1%)을 제한한다. 0.5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2026년 4월 28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6천피 생존 전략: ②모두가 사이클 끝만 보고 있다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채널전략팀 RA 김민근 minkeunkim@ hanafn.com

(결론적으로) 이란 전쟁 이후 시장의 핵심은 단순한 단기 충격이 아니라, **질서 재편과 자산 재평가의 시작**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전쟁의 종료만 기다리기보다, 복구·에너지·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다음 국면을 먼저 봐야 한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기존의 경기순환 잣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해, 밸류에이션과 **장기 계약 구조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결국 투자전략도 익숙한 사이클의 끝을 좇기보다,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새롭게 가격이 매겨질 자산을 선별하는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바야흐로 시장은 충격의 해석보다, **전환기의 승자를 가려내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과 이란간의 2차 협상이 불발되었지만 전쟁의 재개를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은 늘 가격 변수에 먼저 반영되지만, 더 큰 변화는 그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에너지 안보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국가와 기업의 투자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은 이제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 이후 어떤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것인가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국면의 **본질은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 변화다**(4/21, 6천피 생존전략: ①재평가의 서막 참고).

이러한 구조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수정해야 할 것은 익숙한 투자 판단의 틀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은 반복적으로 사이클의 정점과 저점을 계산해 왔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 재고가 정점을 지나고, 언제 ASP가 꺾이며, 언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안정화되는지가 핵심 변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을 과거와 같은 경기 민감 업종으로 해석하고 있다. **모두가 사이클의 끝만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업종이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투자 체계의 중심 인프라로 재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 혁명을 실제로 경험해본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데이터는 참고가 될 수 있어도, 이번 국면의 지속성과 폭을 규정하는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 더구나 AI는 아직 하나의 고정된 산업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반도체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데이터센터, 서버, 메모리, 전력설비, 냉각,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가 동시에 연결된 생태계다. 다시 말해 AI는 아직 완성된 산업 분류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다시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이름에 가깝다. 이런 구간에서는 사이클의 종료 시점보다 구조적 수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장기 계약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장기 공급계약이 단순히 수

급 불균형의 부산물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읽혀야 한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과 고성능 메모리, 첨단 패키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장기 계약은 단순한 매출 확정이 아니라 미래 CAPEX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장치다. 결국 계약 구조의 장기화는 이번 반도체 국면이 과거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다.

주가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주가는 결국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함수**다. 다시 말해 PER과 EPS의 조합이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두 변수를 **더 직관적으로 금리와 수출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 PER은 금리 수준과 할인율의 영향을 받고, EPS는 기업이익,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결국 지금 한국 증시의 핵심 공식은 주가 = 금리 x 반도체 수출이라는 형태로 재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수학적 항등식이 아니라 전략적 프레임이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결정하고, 반도체 수출이 이익의 하단을 떠받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반도체 수출을 볼 때 가격(P)과 물량(Q)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물량 회복이 우선이었다. 출하량이 늘고 재고가 감소하면 업황 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며, AI 관련 수요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는 같은 수출 증가라도 질이 전혀 다르다. 물량만 증가하는 회복은 경기 반등의 신호에 그칠 수 있지만, 가격과 물량이 함께 오르는 회복은 이익 체력의 구조적 상향을 뜻한다. 시장이 이를 확인하는 순간,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증시 전체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금은 단순한 업종 장세를 넘어 자산시장 구조가 바뀌는 초입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일종의 초주식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시장은 과거에도 체제 변화와 유동성 환경, 자산 선호의 이동이 겹칠 때 강한 상승 국면을 경험**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이 그랬고, 2000년대 후반 바이 코리아 국면도 그랬다. 그리고 2020년대 중후반은 또 다른 형태의 전환기일 수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기순환이나 정책 부양보다, 가계와 투자자의 자산배분 철학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 한국의 부는 대체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축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서히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주식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투자자의 거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의 절대 우위가 약해지고, 주식과 금융상품이 대체 자산군으로 자리 잡는 변화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 증시의 구조적 리레이팅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자금이 단순히 순환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 이후를 바라보는 투자전략도 결국 이 변화 위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 첫째, 전쟁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높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안보·에너지·공급망 재편**이라는 새로운

투자 질서를 만든다. 둘째, 반도체는 더 이상 전통적 재고순환 업종으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핵심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국 증시의 방향은 금리와 **반도체 수출, 특히 가격과 물량이 동행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자산시장 전체로는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무게 이동**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 시각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이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인가"다**. 패러다임 전환기의 시장은 늘 과거의 평균에 대한 집착을 시험해 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사이클의 끝을 바라볼 때, 시장은 구조적 재평가의 시작을 먼저 반영할 수 있다. 이란 전쟁 이후의 투자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만이, 새로 열리는 질서의 수혜를 선점할 수 있다.

2026년 4월 27일 | Global Macro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4월 5주] 한국 금리라고 특별하지 않다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미국					

주: 최근 변경은 4/20. ●는 직전 전망

- 4월 FOMC, 고용 평가 개선되며 매파적 동결 예상. 인상 기대로 전환되긴 어려우나 펀더멘털 반영해 장기금리 반등 리스크
- 한국 금리는 이란 사태 이후 미국 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움직임. 올해 2%대 중반의 성장 속 인상 리스크 확대. 다만 시장이 내년까지 약 4회 인상을 이미 반영해 중립 의견 유지

Weekly Viewpoint

지난주 **미국** 금리는 2~10년 만기에 걸쳐 7~8bp 상승했다. 미국-이란 휴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유가가 반등하고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유가 상승의 악영향이 소비 중심으로 나타날 위험은 상존한다. 그러나 3월 소매판매 등 소비 데이터는 양호했으며 [이슈 3], 주간 ADP 고용이 4주 연속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 [도표 17]. 30일에 발표될 1분기 성장률도 컨센서스(2.2%)를 상회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4월 28일 FOMC는 매파적일 것이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성명서에서 '고용 증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이 수정될 것이다. 고용 둔화가 분명하게 완화된 환경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인하 소수의견은 Miran 이사 1명에 불과할텐데, 그도 인하 횟수를 3~4회로 이전보다 적게 예상하고 있다 [도표 22]. 한편 시장은 이미 올해 동결, 내년 1회 정도의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인하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슈 2], 인상 프라이싱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장기금리의 상승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한국 금리는 WGBI 편입 시행,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 등 국내 고유의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글로벌(미국) 금리와 동조화 현상이 강하다. 이란 사태 이후 미국과 한국 10년 금리의 누적 상승 폭은 최대 48, 47bp였다(3월 27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 누적 상승 폭도 각 35, 36bp로 거의 같다 [도표 1]. 유가 등락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는 동시에 양호한 펀더멘털로 반락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 (3월 고용, 소매판매 등)보다 시차를 두고 1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통해 양호한 성장이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아직 인하와 동결을 저울질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내년까지 약 4회 인상이 반영된 상태로 인상의 시점과 폭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7%로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세부 내용도 수출(+5.1%)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4.8%) 등 내수까지 견조해 올해 성장률은 2.4%로 기대된다. 물가와 성장 전망이 동시에 상향 조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 리스크 확대와 함께 현 금리 수준 (3년 3.4%대)도 정당화된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04월 28일 | 기업분석_ Earnings Preview

테스 (095610)

DRAM, NAND 동시 수혜 및 신규 장비 기대감

BUY (유지)

목표주가(12M)	117,000원(상향)
현재주가(4.27)	8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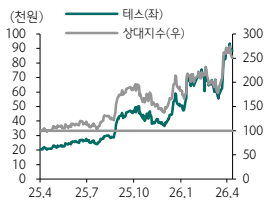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226.18
52주 최고/최저(원)	93,300/20,150
시가총액(십억원)	1,713.4
시가총액비중(%)	0.25
발행주식수(천주)	19,3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47.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4
외국인지분율(%)	12.11
주요주주 지분율(%)	
주승일 외 8 인	29.46
국민연금공단	9.9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34.7	517.1
영업이익(십억원)	90.1	114.7
순이익(십억원)	81.5	102.1
EPS(원)	4,205	5,278
BPS(원)	25,717	30,49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40.1	351.1	425.0	488.7
영업이익	38.5	57.8	83.3	100.7
세전이익	49.8	65.8	85.9	102.4
순이익	42.7	56.9	73.5	85.6
EPS	2,158	2,885	4,143	4,826
증감율	2,631.65	33.69	43.60	16.49
PER	7.18	15.44	21.36	18.34
PBR	0.79	1.99	3.32	3.05
EV/EBITDA	5.19	12.19	16.76	13.78
ROE	13.55	15.76	17.45	17.63
BPS	19,594	22,377	26,659	29,036
DPS	600	850	850	850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1Q26 Preview: 높아진 외형

테스의 26년 1분기 매출액은 977억원(YoY +16%, QoQ -16%), 영업이익은 180억원(YoY +11%, QoQ +41%)으로 전망한다. 25년 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대비 73% 증가하며 1,200억원에 육박했었던 반대급부로 전분기대비 외형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6%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전자의 P4, SK하이닉스의 M15X의 DRAM 신규 투자와 양사의 NAND 전환 투자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견조한 메모리 수요로 인해 고객사들의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DRAM 전환 투자 규모 역시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6년 매분기 실적 증가 전망

2026년 테스의 분기 매출액 흐름은 상고하저를 예상했었다. P4, M15X 신규 투자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국내 고객사들의 DRAM, NAND 전환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2027년까지 시간을 들여 투자하려던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매출액 달성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매분기마다 전분기대비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7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향후 외형 성장 가시성 또한 확보되었다. 고객사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테스 독자적인 모멘텀도 기대된다. DRAM향 BSD 장비가 HBM향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어, 이르면 하반기부터 매출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1c 나노향 High Density ACL 장비도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장비들의 공급을 통해 ASP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공정 장비 최선호주 유지

테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17,000원으로 상향한다. 12개월 포워드 내 2027년 비중 확대 영향과 멀티플도 상향했기 때문이다.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확대 및 2027년 이후 신규 Fab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글로벌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이 35.5배에 달하게 되었다. 국내 업체들도 해당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의 멀티플 상향에 동승 가능하다. 이제 국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의 Target PER은 25배로 안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DRAM과 NAND 양쪽에서 수혜가 가능하고, 신규 장비를 통해 HBM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모멘텀을 확보했음에도 12개월 선행 PER 20.2배에 불과하다.

2026년 4월 2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IPARK현대산업개발 (294870)

외주주택 마진 서프라이즈

BUY (유지)

목표주가(12M)	29,000원(상향)
현재주가(4.27)	22,9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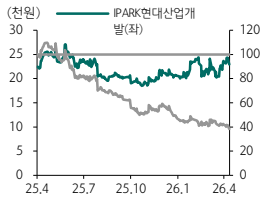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15.03
52주 최고/최저(원)	27,100/18,480
시가총액(십억원)	1,512.6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65,907.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88.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7
외국인지분율(%)	17.64
주요주주 지분율(%)	
HDC 외 6 인	43.02
국민연금공단	9.9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235.9	4,970.2
영업이익(십억원)	467.5	637.5
순이익(십억원)	335.9	466.4
EPS(원)	5,097	7,077
BPS(원)	55,488	61,44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256.2	4,147.0	3,742.5	4,793.9
영업이익	184.6	248.6	527.6	652.4
세전이익	200.3	213.4	509.6	650.4
순이익	155.7	158.1	379.1	488.7
EPS	2,363	2,400	5,752	7,415
증감율	(10.02)	1.57	139.67	28.91
PER	7.64	9.13	4.22	3.28
PBR	0.38	0.44	0.45	0.40
EV/EBITDA	9.25	9.12	4.89	3.70
ROE	5.09	5.00	11.21	12.96
BPS	47,572	49,308	54,393	61,141
DPS	700	700	700	7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1Q26 잠정실적: 컨센서스 하회

IPARK현대산업개발 1Q26 매출액 6,598억원(-27.2%yoy), 영업이익 803억원(+48.7%yoy)으로 당사 추정치(688억원)를 상회한 반면, 시장 기대치(1,008억원)에는 하회했다. 매출액이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보다 부진했다. 특히 외주주택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높은 고마진의 자체주택(GPM 36.1%)과 기대 이상의 외주주택 마진(16.5%)으로 당사 추정치를 상회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자체주택부문에서 서울원 아이파크 진행률은 1분기에 약 2.5%로 추정하며, 인도기준 매출액 인식은 없었다. 외주주택부문의 마진에서는 증액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1분기 분양은 2,093세대로 연간 목표(13,032세대) 대비 달성률이 조금 못 미쳤다. 1분기 수주는 3,086억원(토목 2,665억원)으로 주택부문에서의 수주가 다소 부진했다.

2Q26 실적 추정: 매출액 9,197억원, 영업이익 1,282억원(OPM 13.9%)

2026년 매출액 0.9조원(-20.9%yoy), 영업이익 1,282억원(+59.7%yoy)으로 추정한다. GPM을 자체주택 36.0%, 외주주택 15.0%, 토목 11.0%, 일반건축 8.0%로 추정했다. 자체부문에서 서울원아이파크의 매출 기여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아, GPM이 3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외주주택은 1분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GPM 16.5%를 기록한 바, 2분기부터의 외주주택 마진 믹스가 15%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치를 상향했다. 다만 2026년 입주세대수(6,230세대)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외주주택 매출액을 다소 하향했다. 일반건축부문은 올해 착공을 기대했던 청라의료복합(0.7조원), 잠실마이스(0.5조원)이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아, 매출액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2분기 분양 계획은 3,177세대이며, 3분기에 6,769세대로 몰려있다. 이란과 미국과의 분쟁 이슈는 장기화가 될 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9,000원으로 상향

IPARK현대산업개발 투자의견 Buy를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26,000원에서 29,000원으로 11.5%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5.0배를 적용했다. 목표주가는 외주주택 마진 상향에 따른 연간 추정치 상향을 반영했다. 이제 외주주택 GPM이 15%를 기록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원 아이파크의 공정 본격화, 청주가경(자체) 분양 등이 더해졌을 때, 자체부문에서의 이익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란 이슈 장기화에 따른 원가 등의 이슈를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 2분기 실적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2026년 4월 2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LG이노텍 (011070)

Capa 여력이 신규 고객사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업황

BUY (유지)

목표주가(12M)	700,000원(상향)
현재주가(4.27)	53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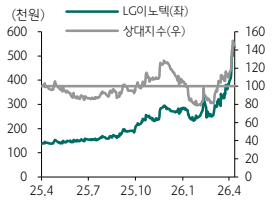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15.03
52주 최고/최저(원)	542,000/137,600
시가총액(십억원)	12,685.6
시가총액비중(%)	0.23
발행주식수(천주)	23,667.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84.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2.1
외국인지분율(%)	30.07
주요주주 지분율(%)	
LG전자 외 1 인	40.79
국민연금공단	10.0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622.9	25,023.9
영업이익(십억원)	959.0	1,058.2
순이익(십억원)	629.5	742.7
EPS(원)	26,598	31,379
BPS(원)	269,082	298,52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1,200.8	21,896.6	23,690.9	24,682.4
영업이익	706.0	665.0	992.1	1,145.5
세전이익	588.8	408.6	665.4	912.0
순이익	449.3	341.3	559.2	729.6
EPS	18,983	14,419	23,628	30,829
증감율	(20.51)	(24.04)	63.87	30.48
PER	8.53	18.79	22.68	17.39
PBR	0.72	1.11	2.02	1.82
EV/EBITDA	2.62	4.02	6.17	5.39
ROE	8.92	6.14	9.29	11.02
BPS	226,229	243,518	265,266	294,215
DPS	2,090	1,880	1,880	2,00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목표주가 70만원으로 상향

LG이노텍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예상 EPS 23,628원에 Target PER 29.7배를 적용했으며 Target PER은 패키지기판 및 카메라 모듈 Peer group 평균 PER에 20% 할인한 수치이다. 모바일 수요 역성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미 모바일 고객사 출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변조리개 카메라 모듈 공급에 따른 ASP 효과가 역성장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글로벌 FCBGA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대면적 FCBGA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며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FCBGA 기업들의 26년 평균 PER은 50배 수준으로 여전히 멀티플 괴리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여력은 충분하며 27년 FCBGA Capa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은 추가 고객사 확보에 따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Q26 Review: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대폭 상회

26년 1분기 매출 5조 5,348억원(YoY +11%, QoQ -27%), 영업이익 2,953억원(YoY +136%, QoQ -9%, OPM 5.3%)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하나증권 추정치를 대폭 상회했는데 환율 효과와 더불어 북미 고객사의 모바일 수요 장기화로 전년동기대비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은 북미 고객사향 Cu post 적용 RF-SiP 및 디스플레이 고객사향 기판 수요가 양호했다. BT 기판 또한 비모바일 영역 확대에 힘입어 90% 이상의 가동률이 유지되었으며 PC향 FCBGA 매출 또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빌리티 솔루션 부문은 조명 및 차량모터 등 고수익성 신규 프로젝트 양산 매출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했다.

2Q26 Preview: 롱테일 효과 + 기판 기대감 지속

26년 2분기 매출 4조 8,389억원(YoY +23%, QoQ -13%), 영업이익 1,376억원(YoY +1108%, QoQ -53%, OPM 2.8%)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통적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북미 모바일 수요 장기화, 패키지 및 모빌리티 솔루션 호조로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5년 9월 출시된 모바일 제품군의 7개월 누적 판매량은 전작을 약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2분기까지 판매량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은 모바일 신모델향 패키지 기판 공급 개시, FCBGA 및 디스플레이 매출 확대에 따라 전분기대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솔루션 부문은 조명, 통신모듈 등 고수익성 제품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지속되며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04월 2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5월 전략 – DPS 조기 정상화 기대감 커질 시점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0원
현재주가(4.27)	9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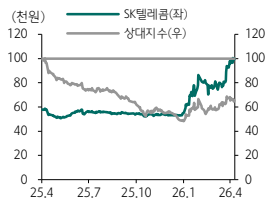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15.03
52주 최고/최저(원)	100,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21,049.4
시가총액비중(%)	0.40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59.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8.8
외국인지분율(%)	38.97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7,733.9	18,096.9
영업이익(십억원)	1,894.5	2,018.7
순이익(십억원)	1,244.1	1,322.5
EPS(원)	5,745	6,174
BPS(원)	62,976	65,67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940.6	17,099.2	17,798.0	18,383.5
영업이익	1,823.4	1,073.2	1,887.2	1,983.6
세전이익	1,761.8	722.3	1,567.2	1,696.6
순이익	1,250.2	408.4	1,156.8	1,250.0
EPS	5,810	1,901	5,386	5,820
증감율	16.27	(67.28)	183.32	8.06
PER	9.50	28.14	18.20	16.84
PBR	1.01	0.89	1.55	1.50
EV/EBITDA	3.73	4.41	4.73	4.43
ROE	10.83	3.33	8.77	9.10
BPS	54,898	60,299	63,305	65,406
DPS	3,540	1,660	3,600	3,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TP 14만원/통신서비스업종 Top Pick 유지, 5월 주가 전망 밝아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한다. 더불어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5월 Top Pick으로 제시한다. 추천 사유는 1) 1분기 매출/영업비용 흐름이 양호할 전망이라 향후 실적 호전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2) 1Q 배당금 조기 정상화가 올해 DPS 급등 기대감을 키워줄 전망이고, 3) 5G SA 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며, 4) 2026년도엔 통신 3사 중 가장 괄목할만한 이익/배당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고, 5) 통신장비 주가 급등세가 통신서비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 이동전화매출액 비중이 높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은 SKT로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 내용상 좋을 것, 배당 조기 정상화 기대감 팽창할 것

2026년 1분기 SKT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이 5,231억원(-8% YoY, +339% QoQ으로 예상되는데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5,069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다. 2025년 2분기 영업정지 영향으로 이동전화매출액이 전년동기비 감소할 것이나 전분기대비로는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5G 순증 가입자 증가가 나타나면서 2025년 4분기 이후 회복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업비용 추이도 양호할 전망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보였던 2025년 1분기대비로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나 전분기비로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는 구조조정 효과로 2026년 1분기 YoY/QoQ 모두 감소가 예상되며 감가상각비 역시 정체가 예상된다. 1분기 실적 내용이 당초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 2026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 1.9조원, 2024년 이상의 실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1분기 DPS가 800~900원 사이로 발표되는 가운데 연간 이익 전망치가 양호하게 형성될 것이라 2026년 DPS 3,600원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어닝 시즌 주가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판단이다.

주가 상승 위한 재료 많아지는 시점, Multiple 확장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현 상황을 감안하면 SKT Multiple 확장,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이 나타날 공산이 커 보인다. 어느 때보다 재료가 많아질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익 성장/배당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책 AI 사업자 선정 가능성 및 5G SA 상용화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5월엔 어느 때보다도 SKT 호재가 집중될 시기라 한단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시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2026년 04월 2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T (030200)

5월 전략 – 주가 상승을 위한 재료가 부족한 시점

BUY (유지)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4.27)	61,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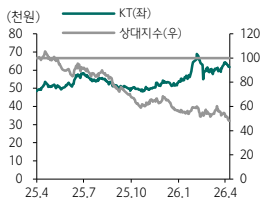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15.03
52주 최고/최저(원)	68,900/48,250
시가총액(십억원)	15,398.5
시가총액비중(%)	0.29
발행주식수(천주)	252,021.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22.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3
외국인지분율(%)	49.00
주요주주 지분율(%)	
엔대차동차 외 1 인	8.07
국민연금공단	7.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7,777.2	28,251.8
영업이익(십억원)	2,130.9	2,283.3
순이익(십억원)	1,528.0	1,641.3
EPS(원)	5,783	6,201
BPS(원)	76,249	79,21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6,431.2	28,244.2	28,910.4	29,627.7
영업이익	809.5	2,469.1	2,040.8	2,114.5
세전이익	584.7	2,418.1	2,059.4	2,159.6
순이익	470.3	1,731.0	1,468.9	1,541.5
EPS	1,850	6,869	5,828	6,116
증감율	(52.41)	271.30	(15.16)	4.94
PER	23.70	7.66	10.48	9.99
PBR	0.67	0.73	0.81	0.78
EV/EBITDA	4.31	3.63	3.91	3.67
ROE	2.85	10.22	8.12	8.13
BPS	65,177	71,886	75,278	78,771
DPS	2,000	2,400	2,600	2,8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6,000원으로 유지, 단기 박스권 주가 흐름 예상

K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12개월 목표주가를 76,000원으로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이동전화매출액 증가로 일회성손익을 제외하면 2026년에도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2) PBR로 보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2026년도 이후 재차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증가가 예상되고 배당 정체가 지속될 전망이라 단기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5월에도 6~7만원 박스권 주가 흐름을 감안한 투자 전략 설정이 요구된다.

1분기 실적 부진/배당도 정체 예상, 주가 올릴만한 재료 보이지 않는 상황

KT 2026년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 영업이익이 4,879억원(-29% YoY, +115% QoQ)으로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5,455억원)를 크게 하회할 전망인데 2025년 1분기 실적이 좋았던 탓도 크지만 최근 매출액/영업비용 추이가 양호하지 못한 영향도 적지 않다. 물론 위약금 면제 및 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 영향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동전화매출액 성장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 지급수수료 증가와 더불어 마케팅비용 역시 증가가 예상되어 탑라인/영업비용 추이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DPS가 600원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연초 실적 흐름이 좋지 않아 2026년엔 배당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사 주가 상승으로 인한 키 맞추기 식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익/배당 측면으로 볼 때 당분간 KT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릴 만한 재료는 없어 보인다.

자사주 매입만으론 주가 상승에 한계 있을 것, 단 6만원 미만에서는 매수 추천

KT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수급 개선을 기대하는데 실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3년전과는 달리 이미 주가가 6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2,500억원이라고 해도 전체 주식수의 1.6% 수준에 불과하며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관계로 유통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작년과는 달리 DPS 증가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을 끌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단, 6만원 미만에선 저점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2026년 DPS가 2025년 수준인 2,400원에 그친다고 해도 기대배당수익률이 4%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주 투자 환경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수준이라 매수에 가담해도 되겠다.

2026년 04월 2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LG유플러스 (032640)

5월 전략 – 단기 주가 반등 기대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원
현재주가(4.27)	16,4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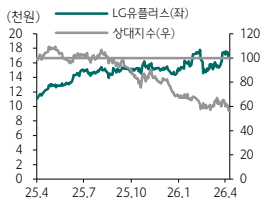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15.03
52주 최고/최저(원)	17,810/11,480
시가총액(십억원)	7,062.1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429,828.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87.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8
외국인지분율(%)	41.80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3 인	38.26
국민연금공단	7.3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5,736.3	16,058.1
영업이익(십억원)	1,127.0	1,206.3
순이익(십억원)	723.6	786.8
EPS(원)	1,709	1,851
BPS(원)	21,843	22,94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625.2	15,451.7	15,698.6	16,225.5
영업이익	863.1	892.1	1,108.5	1,174.2
세전이익	450.6	680.5	901.8	988.0
순이익	374.5	523.9	796.4	872.5
EPS	858	1,208	1,853	2,030
증감율	(39.83)	40.79	53.39	9.55
PER	12.04	12.19	8.87	8.09
PBR	0.52	0.71	0.76	0.71
EV/EBITDA	3.09	3.52	2.78	2.37
ROE	4.40	6.01	8.74	9.04
BPS	19,825	20,770	21,689	23,028
DPS	650	660	700	7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유지/TP 20,000원 유지, 5월 주가 상승 가능성 높음

LGU+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주가 20,000원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1) 첫번째 분기 실적이 우수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 2026년 연간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고, 2)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 장기 주주이익환원 증대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며, 3)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이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5월 실적 발표 시즌엔 이익 성장/장기 주주 환원 증대 기대감이 높아질 시기라 LGU+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첫번째 분기 실적이 중요, 연간 실적/장기 주주환원증대 기대감 커질 듯

통신사 1분기 실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회성손익을 제외하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관계로 투자가들이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실적을 예측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LGU+의 경우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동시에 전년동기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 2026년엔 기다렸던 두 자리 수 이익 성장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면에서도 2025년 하반기 이후 나타난 이동전화매출액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 감소, 마케팅비용 및 CAPEX 정체가 예상되어 긍정적 평가가 기대된다. 더불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올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해 800억원보다 높은 900~1,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이 발표될 전망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올해 매입분을 내년에 소각한다고 보면 장기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대배당수익률 감안 시 2만원까지는 주가 상승 기대

일부에선 벌써부터 LGU+ 주가 부담을 토로한다. 기대배당수익률로 보면 충분히 오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장기 통신 업황과 GDP 성장률/금리를 예측하면 2만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소지가 커 보인다. 현실적으로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국내 GDP 성장률이 2% 이상을 기록하기 어렵고 국내 정책 금리 인하 기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배당주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5G SA 시대 돌입 및 요금제 개편 기대감으로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조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감안하면 2026년 LGU+의 DPS 추정치가 700원임을 감안할 때 기대배당수익률 3.5% 수준인 2만원까지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4월 28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한화오션 (042660)

상선 마진 18% 달성

BUY (유지)

목표주가(12M)	175,000원
현재주가(4.27)	13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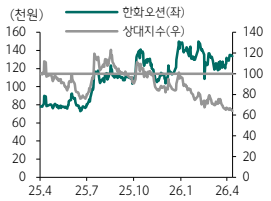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615.03
52주 최고/최저(원)	149,900/73,100
시가총액(십억원)	40,906.2
시가총액비중(%)	0.75
발행주식수(천주)	306,413.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906.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53.4
외국인지분율(%)	11.16
주요주주 지분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1 인	37.68
한국산업은행	15.2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3,796.2	15,457.7
영업이익(십억원)	1,678.8	2,108.4
순이익(십억원)	1,371.2	1,745.7
EPS(원)	4,475	5,697
BPS(원)	24,485	30,10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776.0	12,783.5	13,358.3	14,685.6
영업이익	237.9	1,167.6	1,730.1	2,196.8
세전이익	181.0	842.4	1,615.4	1,956.8
순이익	528.1	1,245.8	1,653.4	1,612.4
EPS	1,724	4,066	5,396	5,262
증감율	127.74	135.85	32.71	(2.48)
PER	21.66	27.94	24.74	25.37
PBR	2.36	5.64	5.23	4.33
EV/EBITDA	38.95	28.43	22.62	18.01
ROE	11.52	22.59	23.63	18.68
BPS	15,859	20,139	25,535	30,797
DPS	0	0	0	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17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화오션 목표주가 17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상선 부문에서 일회성 이슈 없이 18.0%라는 높은 마진을 기록한 영향이다. 다른 사업부는 매출 감소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향후 신규 수주 또는 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부담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2026년 1분기 신규 수주는 24.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348.6억달러로 전분기대비 개선되었다. 2026년 기준 PER 24.7배, PBR 5.2배다.

1Q26 영업이익 4,411억원(QoQ +78.2%)으로 컨센서스 상회

1분기 매출액은 3.2조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3.4% 감소했다. 2023년 이후 수주 고선가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LNG선 매출 기여도가 유지되며 조업일수가 5일 감소한 효과를 상당 부분 만회했다. LNG선의 매출 비중은 50%대로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6년 상선 매출 비중은 기존 가이던스에서 변화 없이 7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선은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 생산이 본격화되고 울산급 Batch-Ⅲ 5번함 및 6번함 착수 반영으로 향후 1분기와 유사한 분기 3천억원대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플랜트는 기존 주요 생산설비 공사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신규 프로젝트 인허가 지연으로 매출이 둔화되었다. 영업이익은 4,41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8.2% 증가했다. 저가 수주물량 해소 및 고가 선박 실적 인식이 본격화되며 상선 중심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 직전 분기 경영성과급의 영향이 사라졌고 환율 상승 등 대외변수도 긍정적이었다. 상선은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지속적인 원가 절감이 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일부 선박 조기 인도 효과도 반영된 모습이다. LNG선 매출 비중 감소는 과거 저선가 카타르 1차 물량이 대부분이고 건조 선가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마진은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수선은 직전 분기 C/O 등 역기저효과에 외형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전환했다. 에너지플랜트는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적자를 기록했다.

방산과 해양 수주 추이에 지속 관심

중동 지정학적 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시도될 전망이다.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설비 투자가 본격화되고 해양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특수선도 상반기 말 캐나다 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3분기에 국내 KDDX도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상선 수익으로 타 사업부 고정비 부담을 만회하고 있다. 연내 신규 수주가 이뤄지면 가동률 개선으로 손익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비용 절감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주 성과에 따라 실적 추정치와 멀티플가 재평가될 여지가 존재한다.

2026년 04월 2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에스티팜 (237690)

1Q26 Re: 아주 좋은 시작, 기대할만한 한 해

BUY (유지)

목표주가(12M)	210,000원
현재주가(4.27)	16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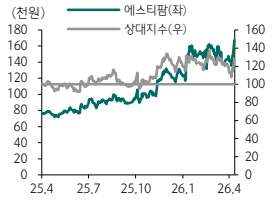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226.18
52주 최고/최저(원)	167,500/71,600
시가총액(십억원)	3,491.4
시가총액비중(%)	0.51
발행주식수(천주)	20,843.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85.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8.1
외국인지분율(%)	11.40
주요주주 지분율(%)	
동아쏘시오홀딩스 외 3 인	37.42
국민연금공단	6.0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08.3	494.2
영업이익(십억원)	72.2	100.0
순이익(십억원)	63.6	86.7
EPS(원)	3,100	4,213
BPS(원)	29,967	33,71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73.8	331.7	418.3	566.6
영업이익	27.7	54.9	73.9	125.4
세전이익	42.7	58.7	85.8	140.4
순이익	34.7	55.0	68.4	109.9
EPS	1,780	2,706	3,283	5,274
증감율	70.99	52.02	21.32	60.65
PER	49.94	44.05	51.02	31.76
PBR	3.56	4.16	5.36	4.65
EV/EBITDA	33.86	29.12	32.51	21.36
ROE	7.82	10.03	10.99	15.68
BPS	24,966	28,666	31,251	36,025
DPS	500	500	500	50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1Q26 실적: 고마진 품목과 연결기업인 CRO 영향으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1Q26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670억원(YoY+27.7%), 영업이익 115억원(YoY+1024.6%, OPM 17.2%)으로,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4.7% 하회(703억원)하였으나 이익은 30.7% 상회(88억원)하여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다. 이익률이 높아진 것은 별도 단으로 올리고 상업화 중 고마진 품목 매출이 높았고, 마진율이 높은 올리고 임상에서도 이번 분기에 4개 신규 프로젝트 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기업인 해외 CRO에서 이번 분기 흑자전환하였고, 환율이 높았던 영향도 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OPM를 유지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계절성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올리고 상업화 물량이 높아진 것과, 임상 프로젝트가 수가 늘어나면서 분기별 OPM 변동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분기에 확인되었다.

2분기는 더 좋을 수 밖에 없고, 4분기가 가장 좋을 것 (4Q>2Q>3Q>1Q 예상)

전체 올리고 매출은 7.5% 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상업화 매출은 YoY-16.5% 감소하였는데 이 감소 분은 약 1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4월에 출하되었으므로 2Q 매출에는 반영될 것이다. 보통 4Q 매출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연간으로 4Q가 가장 높고, 그 다음 2Q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수주잔고는 약 4,600억원으로 상업화 프로젝트의 비중은 80% 이상이다 (이번 분기 비중은 67%). 이 중 올해 1월과 3월에 수주한 상업화 올리고 프로젝트가 있으므로 연간 비중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번 Small molecule의 수주 잔고도 800억원으로 해당 사업부에서 '25년 매출이 263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Small molecule도 전체 매출 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최근 RNA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초기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Capping, LNP 등 mRNA 관련 연구용 매출도 발생하였다. 해외 CRO는 1Q가 비수기라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이익에서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였고, 2Q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흑자도 기대해 봄 직하다.

상반기는 실적 성장 확인, 하반기는 실적 성장에 이벤트도 있을 것

올해 상반기는 2Q 실적 성장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는 4Q까지 실적 성장은 물론 이벤트도 많다. 1) HIV 치료제 STP0404의 임상2a 고용량 투약을 완료하여 탑라인 발표(3Q), 2) 올리고 예비 상업화 고객 중 만성질환과 항암제(펠라카르센, 이메텔스타트 추정, 베피로비르센 확대 추정 가능)의 3상 탑라인 발표, 3) 제2올리고동의 phase 2 부분 활용 방안의 확정(CAPEX 확대) 등이다. 최근 대형 라인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phase 2는 대형 라인이 설치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실적 발표에 가이던스(매출 YoY+20% 이상 성장)를 높이지 않았지만, 3월 수주를 고려하면 2Q-3Q내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도 높다.

2026년 4월 28일 | 산업분석_Update

게임

실적 시즌 전 주요 사항, 크래프톤과 엔씨가 편하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27일

크래프톤 (259960)
BUY | TP 420,000원 | CP 276,000원

NC (036570)
BUY | TP 320,000원 | CP 261,500원

네오위즈 (095660)
BUY | TP 36,000원 | CP 23,250원

시프트업 (462870)
BUY | TP 45,000원 | CP 34,850원

넷마블 (251270)
BUY | TP 73,000원 | CP 50,000원

더블유게임즈 (192080)
BUY | TP 70,000원 | CP 57,100원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Top Pick: 대형주 크래프톤, NC, 중소형주 네오위즈 유지

1분기 프리뷰 시즌을 지나며 커버리지 기업의 컨센서스는 희비가 엇갈렸다. 크래프톤, NC는 상향되었으며 넷마블, 시프트업은 하향 조정되었고 더블유게임즈, 네오위즈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다. **대형주 Top Pick: 크래프톤/NC, 중소형주 Top Pick: 네오위즈를 유지한다.** 크래프톤/NC가 Top Pick인 이유는 단순히 이번 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다.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2026년을 넘어 2027년까지 추정치가 점차 상향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크래프톤/NC의 12MF PER은 12배/15배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향후 추정치 상향에 따라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크래프톤은 1분기 영업이익 4,334억원(-5.2%YoY, +17,713.1%QoQ, OPM 34.8%)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PUBG PC 스팀 기준 1분기 평균 접속자 수는 30만명(-7.0%YoY, +6.1%QoQ)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 4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접속 이벤트를 통해 최고 동시 접속자 134만명을 달성하며 여전한 유저 활성도를 보였으며 특히 3월 평균 접속자 수는 34만명을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4월 8일 업데이트 이후 최고 동시 접속자 90만명 이상을 8일 이상 기록, 이후에도 80만명 후반을 유지 중이다. 최근 30일간 평균 접속자는 36만명으로 작년 4월 대비 +12% 이상 높다. 5월 13일 PAYDAY 모드 업데이트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텐센트는 2월 [화평정영]의 DAU가 9,000만명을 돌파했음을 밝혔다. 2025년 춘절 8,000만명 대비 +1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PC와 모바일 모두 유저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과 같이 트래픽에 동반한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웰메이드, UGC 모드가 있다. PUBG의 플랫폼화를 통한 성장은 리레이팅 트리거라고 판단한다. EPS와 밸류에이션이 모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NC는 1분기 영업이익 1,083억원(+1,973.9%YoY, +3,234.6%QoQ)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올해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의 성과가 추정치를 지속 상향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두 게임의 주요 BM은 유저 트래픽에 기반한 멤버십이다. 이러한 구조는 프로모션BI를 활용한 고 ARPPU 기반 MMORPG와 달리 출시 초반 매출이 가파르게 감소할 여지가 제한적이다.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는 이뤄지겠지만 시장 예상 대비 더딘 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두 게임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동안 캐주얼 게임사들의 시너지를 추진하고 신작의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한다면 장기 성장의 가시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8월 게임스컴에서는 [아이온2 글로벌]과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즈]의 공개를 기대한다. 각각 2026년 3분기 2027년 1분기 출시 예상되기에 이번 1분기의 성과가 반짝 실적이 아니라 2027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026년 말 국내 구글 스토어 수수료 인하 시 여전히 건재한 레거시 IP를 바탕으로 큰 수혜가 기대되기에 2027년 증익의 가시성도 높아졌다. 명확하게 기업이 좋아지는 시점으로 매수를 권고한다.

2026년 04월 28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5월 투자 전략

결국 통신 서비스로까지 매수세가 확장될 듯 합니다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4월 27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98,0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61,1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6,430원

5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5G SA 도입 기대감 높아지고 있어 유의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5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5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장/단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배당 증가/자사주 매입 규모 증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피지컬 AI 확산을 위해 5G SA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과거 세대 진화 당시 통신사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Multiple 확장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DPS 상승/요금제 개편 기대감 증폭되고 있어 뚜렷한 투자 환경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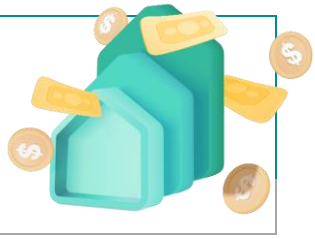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5월 통신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2026년 1분기 통신 3사 실적 발표, 2) 1분기 DPS 발표 및 주주 환원 전망, 3) 미국 주파수 모의 경매 시작, 4)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국내 5G SA 도입 논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슈가 많지는 않지만 굵직한 재료들이 많아 통신사 주가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는 많지 않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만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 실적 발표 이후엔 오히려 악재 해소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SKT 배당 정상화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호재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5G SA 확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통신 3사 Multiple 확장,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5G Advanced, AI 기지국, 네트워크 API, 자동화 기술, 5G SA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이 이슈화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5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모든 면에서 SKT가 가장 매력적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하며 5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평가한다. 5월에도 SKT를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는데 1분기 실적 및 DPS 발표를 계기로 SKT 이익/배당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커질 것이며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무선 매출 비중이 높은 SKT에 대한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재료가 많아 장/단기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 점검 결과



건설 Weekly | 2026.4.28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0.6%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도, 외인이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E&A, GS건설과 DL이앤씨 매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크게 매도했다. 외인은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를 매수, 삼성E&A와 대우건설을 매도했다. 저번 주 삼성E&A의 실적발표가 있었으며, 재건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확인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7으로 3주 만에 상승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4주 연속 상승(+0.04%), 전세가는 45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60주 연속 상승(+0.09%), 전세가는 61주 연속 상승했다(+0.16%). 서울 매매가는 65주 연속 상승(+0.15%), 전세가는 62주 연속 상승(+0.22%)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하락했다(각각 -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38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34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6%, +0.05%).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8%), 인천 보합, 부산(-0.01%), 대전(-0.01%), 대구(-0.03%), 광주(-0.07%)가 하락했다.
- 4/23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 점검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비상경제 TF를 통해 4/3부터 주요 품목들의 수급을 관리했으며, 4/17 기준 전국 274개소(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44개소, 도로 152개소)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으나, 5월 중 현실화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단열재, 방수재, 실란트, 아스콘 등 부족으로 공사 중단 사례가 일부 있으나, 타공정 우선 시공으로 중단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중인 상황이다. 자재 수급은 평시대비 물량은 줄었으나, 원료 수급 및 재고로 공급 중이며 전쟁상황 초기보다 다소 진정된 국면이다. 자재별로 아스콘은 3월 전년비 70% 수준의 공급으로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레미콘혼화제는 내수 원료공급을 유지하여 불안을 완화했고, 가격은 최대 30% 상승했다. 단열재는 원료 재고는 50% 수준이며, 가격은 최대 40% 인상됐다. 플라스틱창호는 70~80% 생산 수준 유지중이며, 가격은 동결 또는 일부 10% 인상이다. 접착제는 70~80%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30~50% 인상됐다. 실란트와 철근 등은 수급 문제가 없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비시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시급공사 우선 납품 등으로 수요관리 조치한다.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주에도 건설사 실적발표가 이어진다. 4/27 IPARK현대산업개발, 4/28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4/29 삼성물산, 4/30 GS건설과 DL이앤씨의 순서로 예정되어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외주주택 GPM이 일회성 없이 16.5%를 기록했다. 2026년 전반적인 주택 부문에서의 마진 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주택주들의 마진이 어느 레벨일지 기대감을 자아낸다. 다만 2분기부터는 건설자재 가격 및 수급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이란 분쟁과 관련하여 결과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시나리오로 볼 경우, 종전 및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재건 및 이란개발 테마로 삼성E&A, GS건설, DL이앤씨가 수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자재 가격, 수급 우려, 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추천종목은 없다.

2026년 4월 28일 | Global Equity

Advantest(6857.JP)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했으나, 상향 조정 가능성 상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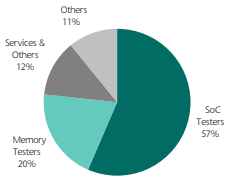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9,379 JPY
CP(4.27)	31,500 JPY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Information Technology
주요 영업	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홈페이지	www.advantest.com
시가총액(십억JPY)	23,058.0
시가총액(조원)	212.9
52주최고/최저()	32400/5641
주요주주 지분율(%)	
Nomura Holdings Inc	12.21
Blackrock Inc	11.77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8.2	72.4	390.7
상대	26.2	58.7	349.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엔)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486,507	779,707	968,363	1,155,512
영업이익	81,628	228,161	384,472	486,267
순이익	62,290	161,177	286,735	357,699
EPS(USD)	84.5	218.7	393.0	493.8
EPS(YOY, %)	(51.6)	158.9	79.7	25.7
ROE(%)	15.6	34.4	48.1	49.7
PER(배)	80.7	29.6	65.0	51.7
PBR(배)	11.7	9.4	28.4	21.4
배당률(%)	0.5	0.6	0.2	0.4

자료: Advantest, Bloomberg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FY4Q25 Review: AI 수요를 기반으로 매출액 1조엔을 1년 앞당겨 달성

Advantest는 회계연도 25년 4분기 매출액 3,281억엔(YoY +41%, QoQ +20%), 영업이익 1,531억엔(YoY +139%, QoQ +35%)를 기록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24% 상회했다. 고마진 AI향 테스트 장비 매출 호조로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매출액이 가이던스였던 매출액 2,695억엔도 상회하면서, 중장기 가이던스인 매출액 1조엔을 1년 앞당긴 회계연도 2025년에 달성했다.

전방산업별로는 SoC 테스터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한 2,372억엔, 메모리 테스터는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한 368억엔, 지원사업부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186억엔을 기록했다. 지원 사업부도 크게 성장했는데, SoC향 테스트용 인터페이스 보드가 판매 호조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만향이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1,888억엔을 기록했다. 다수의 팹리스들의 요청으로 AI용 반도체 품질 강화를 위해 파운드리 및 OSAT 업체들향 매출이 주효했다. 중국향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568억엔을 달성을 했으며, 주로 SoC 및 메모리 테스터 중심이었다. 한국향은 메모리 테스터 수요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345억엔을 달성했다.

FY2026 가이던스: 중장기 성장 위한 선제적 비용 반영해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

회계연도 2026년 매출액 1조 4,200억엔(YoY +26%), 영업이익 6,275억엔(YoY +26%, OPM 44%)를 제시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4%(OPM -2%p) 하회했다. SoC 테스터향 매출액을 전년대비 30% 증가한 9,995억엔으로 제시했다. 고마진 SoC향 매출액 증가폭이 전사 매출액 증가폭을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보수적인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중장기 성장을 위해 R&D 투자 증가 등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테스터향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01억엔을 제시했다. 주로 DRAM 중심의 수요를 통해 전년대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페이스 보드 및 테스터 핸들러 매출액을 포함한 기타 매출액도 전년대비 20% 증가한 965억엔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SoC 테스터 시장 전망치 상향 조정

Advantest는 CY2026년 메모리 시장은 기존 22~27억 달러를 유지한 반면, SoC 테스터 시장 규모 전망치를 기존 85~95억 달러에서 87~9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AI에 대한 가시성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전방업체인 TSMC가 2026년 CAPEX 가이던스를 상단 수준으로 상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메모리 시장은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했지만, 향후 메모리 업체들의 CAPEX에 따라 SoC 시장과 같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FY2026년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제시되었지만, SoC 시장 규모가 상향 조정된 점과 2025년 SoC 시장 내 점유율 66%를 고려하면, 향후 가이던스 상향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4.2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CPU가 이제야 관심을 받는군요

AMD와 Arm을 더 선호합니다

- AI가 학습에서 추론과 에이전틱 인공지능으로 확산될수록 CPU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인텔의 실적 발표 덕분에 CPU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INTC +23.6%, AMD +13.9%, Arm +14.8%). 인텔 덕분에 CPU가 부각됐지만, 그 수혜가 곧바로 인텔로 간다고 보긴 어렵다. 전통 데이터센터의 AI화에선 AMD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AI 추론용 데이터센터에선 Arm 기반의 CPU가 더 빠르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인텔의 단기 주가 흐름은 턴어라운드 기대감 덕분에 좋을 것으로 기대하나, 장기 구조적 측면에선 AMD와 Arm을 더 선호한다.
-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축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할 것이다. 학습 단계에선 GPU와 HBM, 고속 네트워킹이 중요한 병목이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장시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병렬 연산 성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추론 단계에선 구조가 달라진다. 사용자 요청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 모델 선택, 라우팅, 검색, 데이터베이스 조회, 툴 호출, 응답 후처리가 반복된다. 에이전틱 AI로 갈수록 여러 모델과 도구를 조율해야 한다. GPU 연산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CPU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 추론시장에서 CPU의 역할은 중요하다. AI 시스템의 교통정리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요청을 어떤 처리 경로로 보낼지 결정한다. GPU에 작업을 배정하거나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벡터 DB 조회 등을 처리하기도 한다. 여러 에이전트와 툴 호출을 조율하고 네트워크 · 스토리지 · 메모리 등의 이동을 관리한다. 유휴 GPU가 없도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데이터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추론이 커질수록 GPU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G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CPU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 우리는 연간전망 자료를 통해 CPU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미 주장했다. AMD의 FY 3Q25 실적 발표에서 얻은 힌트를 근거로 들었다. AMD는 데이터센터 프로세서 수요의 세가지 축을 AI 용 신규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AI용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통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꼽았다. 시장참여자들이 CPU보다 GPU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AMD의 CPU 성능 및 서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4월 미주 Pick하나에선 Arm을 추천했는데,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본격 진입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다. 인텔의 실적으로 CPU가 부각되면 AMD와 Arm에도 호재다.
- AI 추론 수요는 단일한 형태로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전통 데이터센터가 AI 기능을 흡수하는 형태와 GPU 및 가속기를 중심으로 새로 설계되는 대규모 AI 추론 데이터센터 등이다. 전통 데이터센터는 CPU가 중심인 구조다. 범용 서버,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및 웹서비스,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중심이다. GPU는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이다. AI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GPU와 가속기가 핵심이다. CPU는 주연산 장치라기보다 GPU 클러스터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호스트 역할에 가깝다.
- 구조적 차이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설계까지 바꾼다. 전통 데이터센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랙당 전력 밀도, 공랭 중심의 전통 냉각 방식, 범용 이더넷 네트워크, X86 서버 기반 소프트웨어 등이 보편적이다. AI 추론 데이터센터는 더 높은 랙당 전력 밀도, 액체냉각, GPU 간 고속 인터커넥트, HBM, DPU, 고성능 네트워킹 등을 요구한다. AI 추론용 데이터센터는 CPU 자체의 호환성보다 GPU와의 원활한 연결, 전력 대비 성능, 메모리 대역폭, 랙스케일 통합 등이 더 중요하다.
- 기존 데이터센터의 AI화에서는 x86 CPU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여지가 있다. 기업들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AI를 더하면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검색, 벡터DB, 캐싱, 보안, 데이터 전처리/후처리 서버 등이 필요하다. 기존 x86 생태계와의 호환성이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일반 클라우드 컴퓨팅이 x86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서버 CPU 유닛 기준으로 인텔이 70% 안팎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능적인 측면과 GPU 성능 최적화를 위해 AMD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AMD는 컨퍼런스콜에서 서버 CPU 점유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B금융 (105560.KS)	4/27	157,400	157,400	0.00%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삼성SDI (006400.KS)	4/27	641,000	635,000	-0.94%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 전량 현금화 시 최대 11조원 유입 가능 • 현금 유입으로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1,306,000	4.65%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한국금융지주 (071050.KS)	4/27	259,000	260,500	0.58%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4/27	194,700	198,100	1.75%	•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와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 지속으로 외형 성장 기대 • 2025년 글로벌 건설장비 판매가 3년 간의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
알루코 (001780.KS)	4/27	2,540	2,650	4.33%	• 알루미늄 압출 수직계열화 기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구조물로 성장축 전환 • 장기 배터리 모듈케이스 공급계약 확보로 EV 부품 매출 가시성 확대
심텍 (222800.KQ)	4/27	88,900	86,000	-3.26%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4/27	113,500	117,300	3.35%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머트리얼즈 (327260.KQ)	4/27	92,300	92,300	0.00%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코세스 (089890.KQ)	4/27	44,100	43,200	-2.04%	• 반도체 후공정·레이저 응용장비 기반, AI 패키징 투자 확대 수혜 전망 • Bloom Energy향 SOFC 전극셀 장비 수주로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모멘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84%	-1.31%p	+72.51%	+23.0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1,306,000	4.65%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77,000	40.93%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8,210	10.23%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292,000	25.80%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4,300	6.05%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93,100	1.31%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24,500	34.2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28,900	40.41%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7,400	10.92%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17,500	25.56%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71,700	4.25%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53,000	10.35%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536,000	82.62%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1.86%	-5.98%p	+45.27%	-4.2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33,790	14.3%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595	-3.7%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1,280	23.3%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300	40.8%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06.44	49.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0.73	6.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87	24.6%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6.79	20.0%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26	4.27	4.28	4.29	4.30	5.1	5.2
		▪ 일본 3월 실업률 (E 2.6%, 이전치 2.6%) ▪ 일본 3월 유효구인배율 (E 1.19, 이전치 1.19) ▪ 미국 4월 CB 소비자기대지수 (E 88.8, 이전치 91.8) ▪ BOJ 정책 금리 (E 0.75, 이전치 0.75%)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E 1.0%, 이전치-1.3%) ▪ FOMC 금리 결정 (E 3.50~3.75, 이전치 3.5~3.75)	▪ 유로존 4월 GDP SA (E 45.7%, 이전치 0.2%) ▪ 유로존 4월 CPI(전년대비) (E --, 이전치 2.6%) ▪ 유로존 4월 CPI(전월대비) (E 1.0%, 이전치 1.3%) ▪ 유로존 3월 실업률 (E 6.2%, 이전치 6.2%) ▪ 미국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2k, 이전치 214k) ▪ 미국 1분기 GDP SA(전기대비) (E 2.2%, 이전치 0.5%) ▪ 중국 4월 제조업 PMI (E 50.1, 이전치 50.4) ▪ 중국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50.5)	▪ 한국 4월 수출 YoY (E 45.7%, 이전치 48.3%) ▪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 F (E 54, 이전치 54) ▪ 일본 PMI 제조업 (E --, 이전치 54.9)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E 1.0%, 이전치-1.3%) ▪ FOMC 금리 결정 (E 3.50~3.75, 이전치 3.5~3.75)
5.3	5.4	5.5	5.6	5.7	5.8	5.9
	▪ 대한민국 4월 PMI 제조업 (E --, 이전치 52.6) ▪ 유로존 4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2)	▪ 미국 4월 PMI 서비스업 (E --, 이전치 51.3) ▪ 미국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52) ▪ 미국 4월 ISM 서비스 지수 (E 54, 이전치 54) ▪ 미국 4월 ISM 서비스 고용 (E --, 이전치 45.2) ▪ 미국 3월 JOLTs Job Openings Rate (E --, 이전치 4.2%) ▪ 미국 3월 JOLTs Layoffs Rate (E --, 이전치 1.1%)	▪ 대한민국 4월 CPI (E --, 이전치 2.2%) ▪ 중국 4월 레이팅독 종합 PMI (E --, 이전치 51.5%) ▪ 중국 4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 (E --, 이전치 52.1%) ▪ 유로존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48.6%) ▪ 유로존 4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7.4%) ▪ 유로존 3월 PPI(전년) (E --, 이전치 -3.0%)	▪ 일본 3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 미국 5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 일본 4월 PMI 종합 (E --, 이전치 52.40%) ▪ 일본 4월 PMI 서비스 (E --, 이전치 51.2%) ▪ 독일 3월 무역수지 SA (E --, 이전치 19.8b) ▪ 미국 4월 실업률 (E 4.4%, 이전치 4.3%)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E --, 이전치 49.8)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